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때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The JeonBuk Times



2025년 9월 19일(금) 제 3175호

전주권 교통 혁신 구체화…광역생활권 시대 연다

전북도,2조규모계획안제출 전주~새만금 동서 연결성 강화 환승센터·공영차고지로 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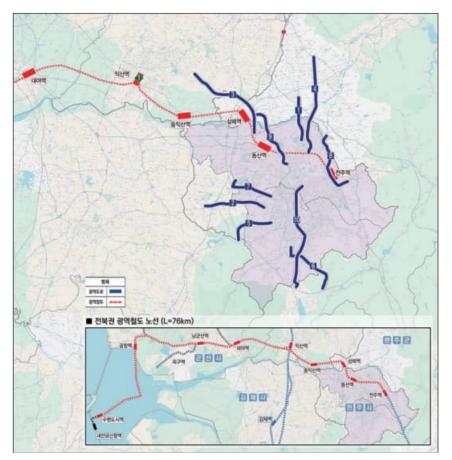
전북도가 전주권을 아우르는 광역교 통망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도는 지난 3일 전주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2조 1,916억 원으 로, 이 중 1조 772억 원은 국비로 계획 돼 있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전주시를 중심으 로 완주, 김제, 익산, 군산을 잇는 광역도 로와 광역철도 등 15개 핵심 사업이 포 함됐는데 계획이 확정되면 교통 정체 해소와 통행속도 향상은 물론, 광역생활 권 구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적 교통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

주요 사업은 △전주 중심의 방사형 광 역도로 10개 노선(신설 5개, 확장 5개) △전주~새만금을 잇는 동서축 광역철 도 1개 노선(정차역 9곳) △버스·화물 공영차고지 2곳 △환승센터 2곳 건설 등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인프라 전반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도로 사업은 10개 노선, 총연장



전북도는 지난 3일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 <사진=전북자치도>

69km 규모로, 전주 외곽과 인근 시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4~6차로로 신설・ 확장해 지역 연결성을 높이고, 교통 혼 잡을 완화할 전망된다.

광역철도는 전주역을 출발해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76km를 운행하며, 동산·

삼례·동익산·익산·남군산·새만금공항 역 등 9개 주요 거점을 연결한다. 이를 통해 동서 간 연계성과 새만금 접근성 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이동 효율성도 크 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버스·화물차 공영차고지 2곳을

조성해 대중교통과 물류 운송의 안전 성을 확보하고, KTX익산역과 광역철도 남군산역에 구축될 환승센터는 철도·버 스·택시·승용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 는 교통 허브로서 환승 시간을 단축하 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 한 특별법 개정 이후 연구용역을 추진 하고, 관련 시군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전주권 광역교통 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요구와 정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 한국교통연구원과 간담회 및 실무 회의를 이어가며 국가계획 반 영 논리도 한층 보강해왔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 어, "삶을 잇고 기회를 여는 전주권"이 라는 비전을 담고 있는데 △방사형 광 역 네트워크 완성 △산업·도시 성장축 형성 △지속가능한 교통 혁신을 통한 편리한 광역생활권 조성을 동시에 추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대도 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 행계획(2026~2030)을 최종 확정·발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철 기자

'한 문장에 담긴 전북 매력' 道, 관광브랜드 슬로건 공모

관광 키워드 공모전에 이어 정체성 슬로건 발굴 전국민누구나참여가능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관광의 매력을 담아낼 전북 관광브랜드 슬 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 초 진행 한 키워드 공모전에 이어 전북관광 의 매력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슬로 건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 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전북에 관 심있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참여 할 수 있다.

접수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포스터의 QR코드를 통 해 가능하다. 응모자는 전북관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참신하고 공감력 있는 슬로건을 자유롭게 제 안하면 된다.

앞서 진행된 키워드 공모전에는 3 로 활용될 예정이다. 천9백여 명이 참여해 '전북 관광은 ○○○이다'라는 주제로 'K컬처', '힐링천국', '역사와 전통', '맛과 멋'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제안됐다.

도는 이를 토대로 더욱 구체적이 고 대중적으로 각인될 수 있는 문구 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당선작은 전문가 심사 등을 거



쳐 10월 중 발표되며 ▲최우수상 1 명(200만 원) ▲우수상 4명(각 50 만 원)을 시상한다. 또 참여자 중 추 첨을 통해 200명에게 5,000원 상당 의 커피쿠폰이 제공된다. 선정된 슬 로건은 향후 관광브랜드 BI(Brand Identity) 개발과 홍보 디자인에 적 극 반영돼 전북 관광의 공식 브랜드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부터 2026년 4월까지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주요 내 용은 ▲관광브랜드 목표 및 전략 설 정 ▲핵심 관광자원 분석과 정체성 확립 ▲슬로건 및 BI 디자인 개발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장정철 기자

모 당 전북도당 2명 검찰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모 당 전 북도당 회계책임자 A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자 B를 정치자금법 제 2조, 제48조 등 위반 혐의로 17일 검찰

하며 정치자금으로 지인과 커피를 마 정위반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 혔다.

시는 등 총 66회에 걸쳐 45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28회에 걸쳐 2,700 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허 위의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A의 회계처리를 방치하고, 허위 회 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보고 등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2조(기본원칙)는 정치자금은 정 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회계책임자 A는 2025년 1월부터 5월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까지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사용 이를 위반하면 법 제47조(각종 의무규

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에 따르면 회계책임자의 회계장부 허위 기재 및 허위 회계보고 등에 대한 감독 대표자 B는 회계책임자 선임권자로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200만원 이하

> 전북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 을 지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앞 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정치자금 회계 질 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 /장정철 기자

전북선관위, 당 회계책임자 정치자금 사적 사용 고발

허위 회계보고 · 의무 방임 혐의 2,700만원 현금 인출 등 의혹

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RE100 앞당기기' 전북형 풍력산업 실증 본격화 '에너지솔루션' 풍력분과 회의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과제 로드맵 구체화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RE100 실현을 앞 당기기 위해 풍력산업 실증과제를 본 격화, 전북형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 다.

도는 18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풍 력분과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풍력산업의 발전 방향과 핵심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전북도 미래 첨단산업국장을 비롯해 군산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북테크노파 크 등 민·산·학·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전북형 풍력산업을 본격적으 로 키워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

이번 회의에서는 ▲ 군산 금빛바람 클러스터 이니셔티브 ▲ 해상풍력 유 중력용 베어링 성능평가센터 구축 ▲ 지보수 고도화 및 인력양성 플랫폼 구 축 ▲ 지역주민 이익공유 연계 상생모 중 ▲해상풍력 계통안전화 제어기 실 델 실증 등 3가지 신규과제가 제안됐 증 ▲군산항 해상풍력 지원기반 구축



도는 18일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풍력분과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풍 력산업의 발전 방향과 핵심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사진=전북도>

반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 가할 계획이다.

또 풍력분과에서 추진 중인 ▲해상 해상풍력 유지보수선 모델 개발 및 실

다. 전북도는 이들 과제를 통해 산업기 연구 등 기존 안건의 진행 상황이 공유 됐다. 안건별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해 전북형 풍력산업 모델 구축에 박차를 RE100 얼라이언스 정책 실천의 추진 력을 높이기로 했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회의는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 조 성과 RE100 기반 에너지 전환을 가속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전북도, 새만금공항 TF팀 가동…전방위 대응 돌입

5개팀9개실과전문역할분담 항소심·집행정지 대응 체계 구축 조류 충돌·환경 쟁점 과학적 반박 도민불안해소·홍보활동집중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건 응에 나선다.

최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 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첫 TF 회의를 개최하고, 항소심 과 집행정지 결정 대응 및 도 차원의 종 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새롭게 구성된 TF는 △총괄지원팀(기 획조정실장) △공항지원팀(건설교통국 장) △새만금지원팀(새만금해양수산국 다. 장) △환경분쟁대응팀(환경산림국장)

△도정홍보팀(대변인) 등 5개 팀 9개 실 과로 편성됐다. 각 팀은 전문 영역별로 역할을 분담해 최종 판결까지 운영된다.

총괄지원팀은 지휘부 보고와 대응관 리 총괄, 국가예산 대응을 담당하고, 공 항지원팀은 소송 대응 지원과 국토부 협력, 2심·집행정지 소송 대응에 집중한 설 지원 추진 TF팀을 가동하고 본격 대 다. 새만금지원팀은 새만금사업 영향 검 토와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을, 환경분 쟁대응팀은 야생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도정홍보팀은 공항 건설 필요성 홍보와 브리핑을 통한 적 극적인 소통을 책임진다.

> 특히 법원이 지적한 조류 충돌 위험 성, 경제성 부족, 환경 파괴 등 핵심 쟁 점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반박 자료를 정교하게 준비하고, 새만금국제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 는 대외 홍보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

운영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주요 에 대해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미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지원 추진 TF팀을 가동하고 18일 행정부지사 주 재로 첫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회의를 수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신 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도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 을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쟁점 발생 시, 공항지원팀 주관의 협력 래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인프 라"며 "TF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 과학 적 검증, 전방위적인 소통을 빈틈없이 추진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정당성

/장정철 기자

글신문<u></u>화복지센터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전북 대표 익산 회선마을과 김제 금산면이 각각 마을·농촌만들기 동상, 부안군 윤나연씨가 우수주민 금상을 수상했다.

전북 마을·농촌, 행복농촌 콘테스트서 '쾌거'

익산 회선마을 김제 금산면 銅 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 윤나연씨 우수주민 金 영예

부가 주관한 제12회 행복농촌만들 기 콘테스트에서 전북 대표로 참가 한 익산시 회선마을과 김제시 금산 기 좋은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면이 각각 마을만들기·농촌만들기 분야에서 동상으로, 부안군 윤나연 씨가 우수주민 분야 금상을 수상했 동아리 '고선지 목동'은 전북 무형유 다고 18일 밝혔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올해 로 12회를 맞은 전국 규모 행사로, 주민 주도로 마을 발전과 공동체 활 성화를 위해 노력한 우수 사례를 발 굴·공유하는 자리다.

기, 빈집재생, 우수 주민 등 4개 분야 으로 주민자치 기반을 공고히 다지 에서 우수 사례를 시상한다.

를 통해 34개소(마을 16, 농촌 12, 빈 산물 판로 확대에 성과를 냈다. 주민 집 6)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 자치위원회의 주도적인 운영이 돋 했으며, 본선에 진출한 15개 마을이 발표심사와 퍼포먼스 등 공정한 심 사를 거쳐 최종 수상 마을이 선정됐

나연 씨가 금상을 수상했다. 윤 씨는 로컬 콘텐츠 기업 ㈜시고르청춘 대 표로서 부안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마을만들기 분야 전북 대표로 참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 가한 익산시 회선마을은 동상을 수 상하며 농촌 공동체 우수사례로 이 름을 알렸다. 주민들은 깨끗하고 살 마을 축제와 동아리 활동으로 공동 체 결속을 강화해 왔다. 특히 주민 산인 '익산목발노래'를 공연해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한편, 토지 임대와 공동 경작을 통해 마을 소득 창출에 도 앞장서고 있다.

농촌만들기 분야 전북 대표로 참 가한 김제시 금산면 역시 동상을 수 콘테스트는 마을만들기, 농촌만들 상했다. 금산문화복지센터를 거점 고, '동네방네 카페', '무지개마켓' 운 이번 대회에서는 시도 자체 평가 영으로 원평장터 활성화와 지역 농 보이며 농촌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한 점이 수상으로 이어졌다.

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농촌 공 동체 활성화 정책을 한층 확대할 방 우수주민 부문에서는 부안군의 윤 침이다.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플러스사업, 찾아가는 농촌 사회서 비스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 로 주민 주도의 자립적 마을 운영을 창의적으로 재해석, 농촌 마을의 활 뒷받침할 예정이다.

전북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신청 접수

2차 소비쿠폰 10월 31일까지 접수 도내 162만여명에 1인 10만원 신청 첫 주 생년별 요일제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 청을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국민 90%다.

최종 선정은 2025년 6월 가구원별 건

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도내에는 162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차와 동일하게 성인은 개별 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가족을 대표해 진행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개인의 편 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드사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가능하 격을 감안해 사용처에 추가될 예정이 다. 각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앱으로도 다. 모바일·카드형 신청이 가능하다.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차 신청과 같이 다.

'관외신청'을 통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되며, 대형마 트·백화점·유흥업소·사행업종은 제외 된다. 다만, 농촌 지역 여건을 고려해 도 내 하나로마트 105개소와 로컬푸드직 매장 20개소를 새로 포함했다. 이달 22 온라인 신청은 NH농협카드 등 9개 카 일부터는 지역 생협 8개소도 공익적 성

신청 첫 주(9월 22일~28일)에는 집중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실 시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 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 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가구 구성 변화나 건강보험료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대상자 확인과 신청 방법 등 상세 정 보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 서 홈페이지(ips.go.kr)의 '민생회복 소 비쿠폰 안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 /장정철 기자

전북은행, 전북도에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1,000대 기탁

보급위해도에 3억 5천만원기탁 스마트태그 추가 도입…시설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전 북은행이 배회감지기 1,000대 보급을 위해 총 3억5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 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 불안감을 덜어준다. 도지사, 백종일 전북은행장, 오현권 부 무처장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전북은행은 2023년 400대(1억1,800만 원), 2024년 625대(2억 원)를 기탁한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배회감지기 보 급을 후원하며 도내 치매어르신 실종예 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누적 기탁량 은 2,000여 대 이상으로, 대한적십자사 가 직접 구매·배포 및 사후관리를 맡아 실종 위험이 있는 도내 치매 어르신과 인지저하자들에게 순차 지원될 예정이

올해는 스마트태그를 추가 도입해 요 양시설 및 발달장애인 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는 GPS 기능 이 탑재돼 보호자 스마트폰과 연동되며,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해 가족들의

도는 실종노인 예방과 조기 귀가를 돕 행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한규 사 기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 급 사업(13,019건)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를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 는 제도(2,020건)도 병행하고 있다.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치매 어르신을 위해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비 를 기부한 전북은행에 감사하다"며, "치 매는 개인의 질병을 넘어서 우리 모두 가 함께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과제로 치매 극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전북은행이 배회감지기 1,000대 보급을 위해 총 3억5 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道,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난관리기금 10억 긴급지원

'200년 만의 폭우' 침수 등 피해 2차 피해 방지 응급 조치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7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주·군산·익 산·김제·완주·진안·임실·고창·부안 등 9개 시군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10 억 원을 긴급 교부해 복구 지원에 나섰 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0년 만의 극한 폭우로 군산(296mm), 익산 함라(260mm) 등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강수량이 집중 되면서 주택 845동, 상가 2,671동이 침 수되고, 농작물 2,11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피해 규모와 복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난관리기금을 배 분했으며, 해당 예산은 △잔해·토사처 리 △위험수목 제거 △토사 유실 등 공 공시설의 긴급복구 △중장비・인력 등 투입비용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추가 강우에 대비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응급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 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 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이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긴급복 구와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올바른 분리배출,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3. 분리한다 4. 섞지 않는다 2.헹군다 1.비운다

'전주페스타 2025', 10월까지 지속 추진

전주 맛 맛 흥 대표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

'2025 전주독서대전'으로 포문을 연 '전 주페스타 2025'가 오는 10월에도 계속 이어진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2일 한국전통문화 전당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주국제한지 산업대전'을 시작으로 10월 31일 전주비 전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전주 막걸리축제'에 이르기까지 올해 전주페 스타의 다양한 축제들이 10월에도 계속 추진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2025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은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한국 전통문화전당에서 '이것이 한지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올해 한지산업대전은 국제한지패션쇼 장'을 슬로건으로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와 한지 관련 전시, 한지장 초청 제조 시 연, 한지공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일상 속 한지의 쓰임을 확장하고, 방문객들이 한지를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2024 비빔밥축제

일간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주예술난장'은 '뛰어! 전주, 울려! 난 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또한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 주를 대표하는 음식축제인 '2025 전주비 빔밥축제'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서 개최된다. 올해 전주비빔밥축제에서 이어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 는 둘째 날 올림픽 유치 기원 대형비빔퍼

포먼스가 펼쳐지고, 레트로비빔밥거리와 비빔퍼레이드, 비빔프렌즈 팝업스토어, 도전미니올림픽 등 20여 개의 다양한 프 타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다양한 축 로그램들이 행사장을 채운다.

끝으로 올해 2회차를 맞이하는 '전주막 걸리축제'가 전주페스타의 대미를 화려 하게 장식한다. 올해 전주막걸리축제는 삼천동 막걸리 골목을 비롯한 전주 대표 막걸리 업소들이 다수 참여해 전주・완주

막걸리를 알리고, 전주만의 특별하고 푸 짐한 막걸리 안주를 선보인다.

이외에도 전주한옥마을에서는 가을철 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오 는 26일~27일 이틀간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전라감영, 풍남문, 전주향교 일원 에서는 전주국가유산야행(2차)이 진행되 고, 오는 24일~26일 전주대사습청 특별 무대에서는 전북 무형유산 예능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행사가 열린다.

또, 오는 10월 25일에는 태조 이성계 전승기념 오목대 잔치가 열리고, 오는 11 월까지 경기전에서는 '왕의 종이, 조선의 기억'과 '수문장 교대의식', '왕과의 산책' 등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민 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 공할 예정이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페스 제를 즐기며 전주 맛과 멋, 흥을 만끽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도 많은 분들 이 가을철 전주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전 주페스타 축제를 함께 즐기며 즐거운 추 억을 만들어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AI·혁신 추진단 출범

AI 전환 로드맵 마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목표에 발맞추기 위해 AI 중심의 혁신을 주도할 'AI·혁신 추진단'을 출범시

'AI·혁신 추진단'은 기획이사를 단장, 디지털혁신본부장을 부단장 으로 하여 총 4개의 분과로 구성되 며, 각 분과는 연금·복지, 기금운 용, 기관운영, 시스템으로 구분된

추진단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고 AI 최고 책임자(CAIO)를 지정하는 등 AI 대전환을 위한 체 계를 마련해 공단의 다양한 분야 에서 과제를 발굴하며 추진성과와 환경변화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AI 수어 영상 안내 서비스 제공 △AI 시원을 활 용한 상담·홍보 △AI 규정 비서 등 연금서비스 제공 및 업무 효율화 를 위해 AI 활용을 확대해 왔다.

또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 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및 협

업 역량도 강화해 왔다.

더불어 국민연금 데이터를 활용 한 민·관·학 협업을 통해 미래세 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 부 주관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 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추진단은 9월 15일 제1차 AI 운 영위원회를 개최해 공단의 AI 데 이터 및 인프라 현황을 진단하고, 진행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한 AI 활 용 정도와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 다. 앞으로 주기적인 위원회 개최 를 통해 AI 중심의 혁신을 지속적 으로 주도할 계획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AI 활용을 검토한 후 우 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고 이를 정 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단기 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중장기 로 드맵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연금 서비스 혁신과 업 무 효율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

/정혜민 기자

'전주미래도시포럼 2025' 개막

글로벌 석학들 한데 모여 미래도시 해법 모색

국내외 석학들과 글로벌 전문가들이 전주에 모여 급변하는 산업과 기후 환경, 도시소멸의 가속화 등 도시가 직면한 다 양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 이 열렸다.

전주시와 UCLG ASPAC(세계지방정부 연합 아태지부)는 18일 전주라한호텔에 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버나디아 찬드라 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 지부 사무총장, 다니엘라 로드리게스 주 한 포르투갈 대사관 공관 차석, 필립 께 넬 주한퀘벡정부대표부 참사관,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미래도 시포럼 2025'의 개막식을 가졌다.

럼 2025'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략과 사 다. 올해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이어질 례를 공유하고, 글로벌도시가 나아갈 미 예정이다.



전주시와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는 18일 전주라한호텔에서 '전주미래 도시포럼 2025'의 개막식을 가졌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전주미래도시포 래를 함께 모색하는 담론과 협력의 장이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 대한다"고 말했다. 문화도시 △도시브랜딩 △AI혁신 △청

년미래랩(인구위기) △시민미래랩(친환 경교통/신설)의 총 5개 세션으로 나뉘어 도시의 미래와 가능성에 대해 강연과 토 론을 펼친다.

시는 앞으로도 해마다 전 세계 도시 관 계자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글로벌이슈 등 세계의 트렌드를 논의하고, 미래도시 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가 및 전 세계 도 시들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전주 미래도시포럼을 도시 혁신을 위한 글로 벌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주미래도시포럼은 전주만의 행사를 넘 어 미래 도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 색하는 담론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도시의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전주를 비 롯한 글로벌 도시들이 세계와 호흡하며 개막식에 이어 이틀간 국내외 저명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

/정소민 기자

전주시-31개기업,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2025년 여성친화일존기업 협약식

경력단절 여성 취업 위한 네트워크구축강화

전주시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18일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 터(관장 양희옥) 민들레홀에서 여성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좋은 일터 만 들기에 앞장서 온 △미르피아여성병 원 \triangle (유)비타민G&P \triangle (주)한실어패럴 등 31개 기업과 '2025년 전주시 여성 친화 일존기업 협약식'을 가졌다.

여성친화 일존기업 협약은 여성 근 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 로,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 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으로서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인재 채용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고용안정 및 직장 내 성 평등 문화 정착 등이다.

특히 '여성친화기업 현판'을 받은

참여 기업들은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 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여성 인력의 지 속적인 고용과 성장 기회를 보장하 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지 역사회 전반에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양희옥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장은 "여성친화 일존기업 협약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지 속가능한 고용환경을 만드는 실질적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네트워 크를 확대해 여성친화적 고용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 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협약식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 란다"면서 "전주시도 여성의 고용 확 대 및 고용유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민생경제 회복 위한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신청

첫 주엔 요일별 5부제 실시

지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국정과제에 따 라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 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재산가 의 매출 확대까지 동시에 도모하는 새 정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 맞춤형 지원 대책으로, 지난 1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전주시민의 약 99.3%인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과 신용· 62만276명이 지급 받았다.

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1인 폰 신청 시 첫째 주(9월 22일~26일)까지 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당 10만 원이다.

대상자는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전주시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 제외한 모든 국민이며,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 수별

단,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민들의 직접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며, 신청 초기 몰림에 따른 민원 혼잡을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 줄이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비쿠

가 적용된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

을 위해 전담 조직팀을 구성하고 사전 온 라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기간제 인력과 전산장비를 보강하는 등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한 탄탄한 준비와 차질 없 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또, 고령자와 장 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110)나 전주시 전용 콜센터(063-281-등 시민 편의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2차 민생회 복 소비쿠폰 신청부터는 본인이 주민센 터를 통해 오프라인 방문 신청할 경우 별

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수령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시는 소비쿠폰이 지급되면 지역 내 소 비가 되살아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시는 이번 2차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 매출 회복을 돕고, 시민들의 체감 경제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전주시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행정안전부 콜센터(국번없이 8731~8737), 각 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상 담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 (1577-1000)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전국 최초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등성과제시

전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의원 연구단 체인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회장 이국 의원)가 전주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회 사무국장인 온 혜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주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원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성과를 공유하 고, 제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용역을 수행한 전주시정연구원은 △해 외 제작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 문화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외국인 투자 했다.

특히 해외 및 국제공동제작 영화・영 상물 촬영 유치를 위한 실비 환급 구조 상물 촬영 유치의 법제도화 방안 연구 등 연구단체 회원과 전주시정연구원, 전 의 인센티브 조례안과 외국인 투자기업 에 대한 입지·고용 보조금, 조세 감면 등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전주시 영화영상산업 지 행·재정적 지원 방안은 향후 조례 발의 와 행정 실행 등 정책적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4월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는 글 로벌 제작사 유치를 위한 도시 간 경쟁에 대응하고 전주의 앞선 제도적 기반을 마 했다. 최종보고회를 열고, 글로벌 영화사 유치 기업 지원 대책 등 두 가지 해법을 제시 련하기 위해 '전주시 영화영상산업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다.

을 통해 전주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이국 연구회장은 "전국 최초의 독립형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 등 구체적인 성과물이 제시된 만큼, 이번 연구가 전 주를 글로벌 영화영상산업의 중심 도시 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는 회장 이국 의원을 비롯해 박혜숙 의원(감사), 온혜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외국 영 정 의원(사무국장), 김윤철, 송영진, 이성 국, 정섬길, 장병익, 전윤미 의원 등 총 9 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전주덕진서,아동유과납치예방합동순찰·점검실시

통학로 합동 점검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인병)는 지 난 17일 전주덕진경찰서 학교전담경 찰관(SPO), 전주교육지원청, 전라북 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관 내 학교 주변 통학로 및 청소년 밀집 지역 유해환경에 대한 순찰을 실시했 다.

최근 하교길 미성년자 유괴·납치 시도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 라 관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 해 강화된 범죄예방활동 추진했다.

동시에 유관기관과 함께 덕진구 아 중리 소재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순찰하고 하교하 는 학생·학부모 대상 유괴·납치 예 방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아울러 덕진경찰서 학교전담경찰 관(SPO)들은 지난 15일부터 관내 학 교에 직접 진출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괴·납치 관련 집중 예방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오는 10월 2일까지 아동안전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인병 서장은 "아동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들 과 합동해 아동안전 예방활동에 최선 을 다하겠다고"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 산악지역 민간 투자로 관광산업 '새 장'

전북형 산악관광 민간 아이디어 융합·투자 미래형 관광산업 육성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오후 1 시,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전북자치도 산악관광진흥지구' 민간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2회 전북포럼 과 연계해 진행되며, 관광·숙박 개발 분 야 민간기업과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 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역 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산악관광진 흥지구 정책을 민간 부문에 널리 알리 고, 투자 여건과 제도적 지원을 설명하

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여행 트렌드가 자연·치유·레포 츠 중심의 체험관광으로 빠르게 변화하 는 가운데, 산악관광은 미래 관광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광 수요를 선점하고, 민간과의 협력으로 고부가가 치 관광 모델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행사는 △산악관광 홍보 동영상 상영 △산악관광진흥지구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설명 △선도지역별 투자 기회와 지원 혜택 안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 답 순으로 진행된다.

시군 관계자가 직접 설명과 답변을 맡

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련법규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산악지형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치유・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풍부한 산악 레포츠·생태체험이 가능한 복합 관광단 지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에게는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세제 혜 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민간의 창의 적인 아이디어와 투자 의지를 이끌어내 다. 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상생 모델 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 특히, 선도지역별 세부 사업은 해당 국장은 "산악관광은 단순한 레저 차원 을 넘어 치유·생태·레포츠·문화가 융합

아 민간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 된 미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것"이 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민간과의 긴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등 관 밀한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사업 모델 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에도 산악관광 진흥지구 제도 홍보와 민간 투자 활성 화를 위해 설명회와 세미나를 지속적으 로 개최하고, 국내외 투자설명회와 연계 한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

>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악관 광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글 로벌 관광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 /정소민 기자

전북자치도, 수산물 직거래장터 '어서옵쇼' 운영

추석 맞아 판로 확대 최대 56% 할인 판매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을 맞아 도내 우수 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 을 위해 오늘부터 20일까지 도청 서편 광장에서 수산물 직거래장터 '어(魚)서 옵쇼(show)!'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 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부담을 느 끼는 도민들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최대 56%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 실속 있는 명절 장보기를 돕고,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생산·가공업체 34개소가 참여,

바지락·새우·민물장어·조미김·추어탕 등 150여 개 품목을 한자리에서 선보인 다.

특히 선착순 5,000원 할인쿠폰(1인 1 매·품목별 1회 사용)에 더해, 3만 원 이 상 구매 시 5,000원권 1장, 5만 원 이상 구매 시 2장의 추가 쿠폰을 증정해 한 번 더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 해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최대 15,000원까지 추가 혜 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참여 업체 중 15곳은 전북 수 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람' 지정업체로, HACCP 인증·친환경 인증 등 국가 공인 품질 인증을 충족해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수산물을 제공한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며 "앞



들이 전북 바다의 신선함을 한 자리에 서 만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 다.

장은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해 도민 으로도 도내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정소민 기자

전북도,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참가

새만금 고용특구·창업 성과 전국에 알려

까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 서 열리는 '2025 지역경제 혁신 박 람회'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정책 성과를 전국에 알린다.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지방 공기업평가원·한국일보가 공동 주 최하며, 전국 80개 기관이 184개 부 스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사례와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대규 모 행사다.

전북자치도는 36㎡ 규모의 독립 부스를 설치해 △로컬JOB센터 △새 만금 고용특구 △창업·벤처 성과 등 도의 일자리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 화 사례를 집중 홍보한다.

용특구로 지정된 새만금 고용특구 를 통해 입주기업의 인력 수급을 지 원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안정적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 다. 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창업·벤처 부문에서는 민선 8기 벤처펀드 1조 원 결성 목표와 2년 연속 전국 창업증가율 1위 달성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부터 20일 전북의 창업·벤처 생태계 성과를 알 린다. 이를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혁 신 잠재력을 지닌 지역임을 부각시 키고,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하 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 또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새 만금 개발 등 주요 도정 현안에 대 한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룰렛 돌리기, 에어볼 잡기 등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 해 방문객이 전북자치도의 비전과 정책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 번 박람회는 전북자치도의 일자리・ 창업 정책과 도정 주요 현안을 전국 특히 지난해 12월 전국 유일의 고 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다양한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 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도약과 경쟁 력 강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

/정소민 기자

'DNA 정보로 젖소 능력 미리 본다' 개량 속도 4년 앞당겨

유전능력평가 정확도 향상 낙농가 생산비 절감 기대

디엔에이(DNA) 정보를 활용한 유전 체 선발 기술을 국내 젖소 유전능력평 가에 적용, 능력이 우수한 젖소를 기존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 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젖소 부 모·선조의 혈통 정보와 우유 생산기록 을 토대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 디엔 에이(DNA)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 운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체계 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젖소 개량은 국민에게 품질 좋은 우유 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낙농가의 생산 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 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개량 총괄기관으로서 젖소 국가단위 유전능 력평가를 수행하며 산유량이 많고 품질 다.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유전능력을 가진 씨수소를 선발, 개량하고 있다.

젖소 유전능력평가란, 젖소가 가진 능 력을 다음 세대에 얼마나 물려줄 수 있 는지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유전 능력평가는 기독이 쌓일수독 성확도가 높은데, 기존 평가 방식에서는 송아지의 혈통 자료만을 채택하기 때문에 정확도 35%포인트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품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한 국종축개량협회와 협력해 2만 4,000여 두의 유전체 자료를 수집·검증해 유전 체 유전능력평가를 개발하게 됐다.

디엔에이(DNA) 품질검사와 부모-자 이는 효과를 낸다. 식 간 정보 일치 여부 확인 등 다양한 검 증을 거쳐 신뢰성도 확보했다. 이로써 혈통·생산기록에 더해 개체별 디엔에이 (DNA) 정보에 기반한 평가, 분석을 할 수 있어 더욱 정밀한 예측이 가능해졌 를 이른 시기에 판매해 불필요한 비용

기존에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매 젖소가 모두 동일한 능력을 보유한 것 으로 추정됐지만, 새로운 평가 체계를

또한, 씨수소 선발에 유전체 평가를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 적용하면, 송아지 단계에서 능력을 예측 할 수 있어 정액 생산이 가능한 1.5년 이 내에 선발이 가능하다. 이는 평균 5.5년 이 걸리던 선발 기간을 대폭 줄여 세대 간격을 단축하고, 젖소 개량 속도를 높 두에서 3,000두로 확대해 평가 정확도

낙농가 입장에서도 암송아지의 유전체 능력을 조기에 평가하면, 우수한 개체는 맞춤형 씨수소와 교배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능력이 떨어지는 개체 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일례로, 암소가 우유 생산 능력을 갖 추고 실제 우유를 생산하기까지 약 3년 이 걸리며, 이 기간 사육비는 1,768만 원 활용하면 디엔에이(DNA) 차이에 따라 이 든다. 반면, 같은 기간 우유 판매 수 개체별 능력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입은 1,187만 원에 그쳐 마리당 581만 그 결과, 어린 송아지의 유선능력평가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유선체 유선능력 정확도가 기존 25%에서 60%로, 평균 평가를 활용해 송아지 시기에 유전능력 을 정확히 평가하면 이러한 손실을 미 리 차단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유전체 유전능력평가가 국가 개량 체계를 혁신하는데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도 유전체 자료 수집 규모를 연간 1,000 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부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은 국가대표 축 산 연구기관으로서 씨수소 개량 체계 개선과 낙농가 현장 활용 확대에 최선 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월드푸드테크25 식물기반푸드 포럼 성료

미래 식품산업 전략 논의

전북자치도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WFTC)와 함께 18일 익산 국가식품클 러스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다. 국제회의실에서'월드푸드테크25 식물 기반푸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익산시, WFTC, 식품진흥원 등 관계자 북지회 이정상 회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와 국내외 기업·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식품산업의 전략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은 식물기반 대체식품이 갖는 환 경적 가치, 식량안보 기여, 미래 식문화 창출 가능성을 조명하며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으로 마련됐다.

산업 세션에서는 CJ제일제당, 알티스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트, 조인앤조인 등 혁신 기업들이 글로

벌 시장 전략과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비전을 공유했다. 서울대 최영진 교수 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동향과 과제를 논의했

연구개발 세션에서는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국립공주대, 식품진흥원 등이 죄신 연구와 성잭 방향을 발표했다. 선 패널토론에서는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 가들이 기술적 도전과 협력 방안을 제 안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산학연 관계자 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도 지속가능한 미래식품의 해법을 모색

/정소민 기자

'창립 40주년' 대한전문건설협회전북도회 기념식

경영여건 개선 다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는 회원사 임·직원 및 내외빈 700여명 을 초청해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1985년 설립된 공직유관단체 이다.

현재 전국 6만여 회원사의 권익보호 와 건설산업의 '공정성 강화·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 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념식 자리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 도지사, 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 유희 태 완주군수,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시의회 박형배 도시건설위원회 위 원장,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 장, 김병진 전북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 대한 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 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설현장 최일선에서 전문건설업 성장・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회원 여러분의 말했다.

값진 노력으로 협회 창립 40주년 금자 탑을 쌓을 수 있게되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회원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임근홍 회장은 "직접시공 주체로 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적정공사비 확보 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김영태 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 다문화가정 초청행사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8일 부안군 가족센터 및 금융감독원 전북지원과 공동으로 다문화가정 초청행사를 실 시했다.

행사는 다문화 이주여성 16명을 초 청해 화폐·경제 상식 및 금융 생활 관 련 교육을 실시한 후 케이크 만들기 등 문화 체험 행사를 가졌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앞으로 지역아 동센터 등 소외계층 대상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지역사회에 기여 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LX공사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개소

국토교통부의 전략적 지원과 한국국 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의 굴·육성을 통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전문 운영 역량이 결합 된 '공간정보 창 경쟁력 강화와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 업지원센터'가 개소했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혁신창업을 촉 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LX공사는 공간정보 유망기업 발 및 시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

LX공사 어명소 사장은 "공간정보 창 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창업 업지원센터는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실증 △투자유 어, 미래 산업을 선도할 공간정보 혁신 치 · 판로지원 △사업화 자금 연계 등 생태계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 도 공간정보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융 간정보 기반 스타트업이 보다 빠르게 합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초등생 국어·수학·영어 탐구노트 보급

교원 직접 집필·검토 전문성 확보··사교육비 경감・학부모 부담 완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문해력 저하에 대응하고, 공교육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별 탐구노트를 개발·보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어 휘'를 체계화해 학생 수준에 맞는 지원 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학습자료를 제작한 것이다.

탐구노트는 공교육 내 학력신장 책임 강화에 맞춰 개발된 자료로, 전북의 현 장 교원이 직접 집필·검토하고 대학 교 수진이 감수해 전문성을 확보했다.

수업·보충지도·가정학습에서 모두 활 다.

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적 학습 지원 도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학습자신 감 및 성취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

올 2학기 보급된 탐구노트는 초등학 교 3~6학년 대상 국어·수학·영어 3개 교과에 각 4만7,000여부다.

도내 초등학교 409개교 중 94%에 달 하는 383개교가 사용 신청을 했으며, 학 생수 기준으로는 4만5,365명(83%)에 이 르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학기부터 보급을 시작한 '초등 어휘사전 1600'은 학년별 400개 주요 어 휘를 뜻·예문·활용·짧은 글쓰기로 정리 해 문해력 강화와 자기주도학습을 돕는

'초등수학개념노트'는 핵심 개념-문 제해결-정리로 이어지는 구조로 기본・ 응용·심화 학습을 지원하며, 학생이 직 접 개념을 정리하고 설명할 기회를 제

제 문맥 속에 적용해 말하기와 쓰기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영어학습 역량을 강

학교와 교실에서 안착, 활용될 수 있도 록 교원 연수와 학부모 안내에도 힘을 쏟는다.

탐구노트 집필진들이 직접 참여해 활 용 방법을 밀착 안내하고, 학습코칭과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을 높 일 계획이다.

특히 수학은 교육지원청 주관 학생・

학부모 행사와 교원 수업나눔 한마당에 서 체험부스와 시연, 교실 속 챌린지 활 동으로 학습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영어도 교실 속 챌린지 운영과 숏폼 영상·SNS 실천 릴레이로 학생들이 만 나가고자 한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학생 은 교과 개념과 어휘를 정확히 이해해 도교육청은 개발·보급된 탐구노트가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고, 교사는 체계적 자료 활용으로 수 업과 보충지도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학생 문해력 기반 강화와 교과 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중·하위권 학생 지원 과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현대, 4년 만 챔피언 '코앞'

20일 30라운드·이승기 방문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4년 만의 챔피언 자리에 가까이 다가 간다.

전북현대가 20일 오후 4시 30분 전 주월드컵경기장에서 김천 상무(이하 김천)와 K리그1 30라운드를 치른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현대 는 현재 2위 김천과의 맞대결에서 승 리 시 승점 69점을 확보하며 추격하 는 2위권 팀들과 승점 격차를 더 벌 릴수있다.

전북현대는 지난 8월 포항전 패배 이후 코리아컵을 포함해 3연승을 달 리며 다시 한번 K리그1 우승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K리그1에서 시즌 초반과 달

리 최근 10경기에서 8승 2무, 80%의 압도적인 홈 승률을 보여 승리를 자 신한다.

이날은 김제 '파트너 데이'로 김제 시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해 오는 10 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김제 지평선축제'를 알리고 이와 함께 '김 제지평선쌀', '쌀 마스크팩', '지평선축 제 체험권' 등을 팬들에게 선물한다.

전주성에 반가운 얼굴도 찾는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상무 포함) '전북현대의 에이스'로 활약한 이승기가 전주성에 방문한다.

이승기는 2023년 부산 아이파크로 이적 후 올해 7월 은퇴를 알렸으나 선수로서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한 전 북현대를 찾아 팬들에게 은퇴 인사 를 전한다. /장정철 기자

고영정 작가 개인전 광주 'U 갤러리'서 개최

30일까지 꽃사랑 주제 담은 작품 10여 점 전시

"꽃도 사람이다. 슬프기도 사랑스럽기 시됐다. 도 한 꽃을 이야기한다"

화선지에 분채를 직접 입혀 전통적으 로 '꽃'을 표현하는 고영정 작가의 개인 전이 광주 'U 갤러리'에서 오는 30일까 지 개최한다.

'꽃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 번 전시회는 고 작가가 꽃과 사랑을 주 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제로 화폭에 담은 작품 10여 점이 펼쳐

랑에 물들이다', 'INFJ' 등의 작품이 전 있도록 지도해 왔다.

작가는 꽃과 사람을 동일하게 바라보 며 그 속에 내재된 슬픔과 사랑의 이야 기를 분채 한국화로 구현했다.

조선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고 작가는 18회 이상의 단체전과 기획 초 대전을 진행했으며, 현재 예맥회, 선묵

고 작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0여 년이 넘게 정읍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 대표작으로 '낮달맞이', '개양귀비', '파 며 학생들에게 화가라는 꿈을 펼칠 수

> 고영정 작가는 "도종환 시인의 시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는 구 절을 보며, 사람의 인생도 똑같다"고 말

> 이어 "사람이나 꽃이 피어나는 건 똑 같다. 세상을 예쁘게 바라보며 눈에 보 이는 예쁜 꽃을 그리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도, 수도권 관광객에 관광상품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 사 이경윤)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오 늘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 남산타워 T1층 및 광장(팔각정 앞)에서 전북특별 자치도 관광팝업스토어와 연계해'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 홍보부스'를 운영한 다.

이번 홍보부스는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전북특별자 치도 관광 팝업스토어' 행사와 연계해 운 영되며, 전북지역 관광기업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우수 관광상품 및 굿즈를 수도권 관광객에게 직접 알리고 판매하 는 자리로 마련됐다.

센터는 홍보부스를 통해 △센터 지원 사업 및 수혜기업 성과 홍보 △전북특별 자치도 관광굿즈·주민사업체 물품 전시 및 판매 ΔSNS 팔로우 이벤트 및 설문조 사 등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를 추진해 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와 전북 기업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전북 관광기업이 수도 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 련하고, 관광객에게 전북 관광자원과 기 업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홍보부스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이 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신속 현안 처리 당부

간부 대상 공직기강 특강 청렴·정치적 중립도 강조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 행은 18일 본청 2층 강당에서 100여 명 의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서 "2025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다"고 당부했다.

일정을 앞두고 열린 이날 특강은 2025 성과 정책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 년 정책·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6 다"고 말했다. 년 내실 있는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기 내년 교육감 선거를 언급하면서는 "지 위해 마련됐다.

안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간부 들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신속하게 현안 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의 기본 자세로 △ 업무에 대한 책임성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챙기는 엄밀성 △정책과 사업을 이해하고 추진하는 전문성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권한대행은 이어 내년도 본예산 편 성과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을 철저히 검증하고 재정 집행의 타당

금은 공직자의 청렴과 정치적 중립이 유정기 권한대행은 "올해 현재 재정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 원 집행률이 낮거나 고착 상태에 있는 현 칙이 엄격히 지켜질 때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들에게 세부 실행 지침을 전달하며 "조 당부했다.

직 내 책임성과 전문성을 더욱 확고히 유 권한대행은 끝으로 국장과 부서장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최성민 기자

전북대, 국민공감대상 혁신경영 부문 수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17일 서울 언하고 2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통합정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민공감대상' 시상식에서 대학교육 발전과 혁신적 경 능을 덧입히고 있다. 영 성과를 인정받아 '혁신경영' 부문을

및 브랜드 가운데 공감과 소통을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대학, 세계로 성공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사례를 선 도약하는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 발전해 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전북대는 올해 'On AI 시대'를 공식 선

양오봉 총장은 "이번 수상은 전북대 구 성원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라며 "앞 '국민공감 캠페인'은 수많은 경영전략 으로도 AI 기반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당신의 작은 실천이 ,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전북도 X 익산시 청년축제 '팡파르'

2025 전복학병자시도 # 설년축제



정읍시, 내장산 자연휴양림 개장 전 시범운영 실시

정읍시가 내장산 자연휴양림 개장을 앞 두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에 나선 다.

시는 용산동 산 50번지 일원 시유지 49ha 에 산림휴양관 1동과 숲속의집 9동을 조성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숲속의집 2동과 오 토캠핑장을 추가해 휴양림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시민과 시청 직원을 대 상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10월 이용분의 경우 9월 22일부터 26일까 지, 11월 이용분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 지 산림녹지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한시적 으로 산림휴양관 1만원, 숲속의집 26평형 3 만원, 32평형 5만원의 사용료를 받는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물 재정 비와 이용객 의견 수렴, 보완사항 점검 등 을 진행해 개장 후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일부 공사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청 시 유의해 달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 영해 휴양림이 정읍의 대표적인 산림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군산시가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 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 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당초 납부 마감 일은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었으나 납세 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고·납부 기 한을 늘리게 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 민들이 물편을 겪지 않도록 신고・납부기한 을 연장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행 정을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고하도록 노력하 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20일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힐링 체험행사 개최

군산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 은파호수공원 수변무대 앞 공원에서 '군산시민 그린라이프, 반려식물 체험행사'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반려식물을 심고 가꾸며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반려식물'이란 '함께 살아가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생활 속 동반 식물 을 의미한다.

특히 반려식물은 단순한 실내 장식의 개 념을 넘어, 마음을 위로하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존재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시 민들이 식물을 통해 치유와 여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체험행사를 통해 생활 속 치 유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나만의 반려식물을 직접 심어보는 힐링 체험 △기존 반려식물의 영 양 상태를 상담하고 맞춤 영양제를 제공하 는 식물 클리닉 △자신이 기르는 반려식물 의 분갈이를 할 수 있는 자유 분갈이존 등 으로 구성된다.

도시농업관리사는 잎의 색·뿌리상태·수 분관리 등 다양한 진단을 통해 맞춤형 관리 방법을 안내해주고, 식물 영양제도 무료로 제공한다.

시는 다양한 체험을 준비해 시민들이 건 강하게 반려식물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반려식물과 함께 하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 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푸드테크 육성 정책위원회' 출범

푸드테크 거점 도약 민관 협력 전략적 식품 산업 육성 본격화

드테크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며, 이를 이끌 '푸드테크 육성 정책위원회'를 공 식 출범시켰다.

시는 18일 시청에서 '푸드테크 육성 정 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14명을 정책위원으로 위 촉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푸드테크 산업 을 선도할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 고, 익산시의 푸드테크 허브 조성을 위 한 민·관 협력체계를 이끌 핵심 지문기 선시 푸드테크 육성 정책위원회 위원들

이번에 위촉된 정책위원은 산업·학 문·정책을 아우르는 민관학연 연대의 틀을 갖췄다. 인테이크·네오크레마·메 타텍스쳐 등 푸드테크 선도기업을 비 롯해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등 산업단 익산시가 미래 식품산업의 핵심인 푸 체 △원광대·전북대·국립공주대 등 학 계 전문가 △한국식품연구원·한국농촌 경제연구원·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 이 자리에서는 위촉장 수여에 이어 익 산시 푸드테크 산업 추진방향이 제시됐 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계획도 공유됐

특히 이날 오후 한국식품산업클러스 터진흥원에서 열린 WFT25 포럼에서는 '식물기반 푸드테크 산업'을 주제로 익

을 비롯한 국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 출범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포럼은 익산시가 푸드테크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실행 전략을 공유하는 상징적인 장이 됐다.

향후 시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 연구개발(R&D) 지원 △전문기업 유치 △산업인력 양성 등 푸드테크 산업 생태 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푸드테크는 식품 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핵심산 업이며, 익산은 이미 국가식품클러스터 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성장을 위한 최적 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정책위 원회 출범을 계기로 익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푸드테크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 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국가유산미디어아트' 공모 최종 선정

총사업비9억여원확보 2년 연속유산가치재조명

군산시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 국가유산미디어아트' 공모사업 에 최종 선정돼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총 9억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고 18일 밝혔다.

'국가유산미디어아트'는 지역의 독창 적인 이야기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을 결합해 국가 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이는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군산시는 2025년 에 이어 2년 연속 군산 내항 일원에서 국 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 게 됐다.

군산시는 지난 7월 공모 신청을 통해 국가유산청 사업에 응모했으며, 이후 1 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 종 12개 지자체에 선정됐다. 군산 외에 선정된 지자체는 강화군·경주시·부여



시·철원군·청주시·통영시이다.

군산은 2026년 미디어아트 사업 주제 를 '군산번화(群山繁華), 빛을 품다'로 정 했으며, 올해 진행한 '군산의 빛, 꽃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추진한 사업을 확장 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2년 연속 국가유산

군·아산시·양산시·여수시·익산시·진주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군 산시 국가유산 활용사업 추진에서 높 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며, "함께 진행 되는 '군산국가유산야행'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야간 국가유산 활용사업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 정이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가 익산에 익산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이

틀간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전북 특별자치도와 함께 '2025 전북특별 자치도 X 익산시 청년축제'를 개최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의 목소리를 담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

세대 아우르는 행사 풍성

청년들의 열정과 지역의 활력이

서 열린다.

리의 젊음이 펼쳐지는 전북 청년 축제'라는 의미를 담아 청년이 직 접 참여하고 어우러지는 축제로 꾸 며진다. 축제 첫날인 오늘 주요 프로그램

으로 '솔로 이리와'와 '동네산책 로

컬 워크(Local Walk)', '슈퍼피크닉' 등이 진행된다. '솔로 이리와'는 2025 전북청년 생생아이디어 사업에 선정돼 주목 을 받은 2030 솔로 청년대상 매칭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동네산책 로컬 워크(Local 다. Walk)'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익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산 구도심을 탐방하며 지역 문화 를 체험할 수 있다. 20일에는 실전 취업 전략을 배울 수 있는 특강 '청 년잡(JOB)담', 최별 PD와 함께하는 '청춘공감 로컬라이브 토크콘서트' 가 마련된다. 토크콘서트는 '다르 게 사는 삶'을 주제로, 청년들의 공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 고 문화와 산업 속에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꿈 과 도전이 익산에서 활짝 꽃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

감과 성찰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핵심 국책사업 발굴 성과 공유

국책사업발굴 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 국책사업발굴단 보고회'를 개최 했다.

보고회에는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 정책자문단, 전북연구원 관계자, 관련 부서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발 굴 과제 종합 보고 △질의응답 △분과 토론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참석자 들은 부서별 핵심사업 실행과 국가예 산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소개된 발굴 과제 는 정부 기조인 '기본사회 실현을 통

한 성장'을 실현하고 군산의 미래 신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사업 들로, 생활기본권 강화와 혁신산업 육 성이라는 두 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과제로는 △K-Safety 군산 365 국민안전체험관 △그린수소 E-Fuel 실증단지 등이 포함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보고된 발 굴 과제는 군산의 미래 10년을 준비 하는 성장의 씨앗이다. 특히 AI·수소· 블루푸드와 같은 미래산업 선도 과제 들이 포함돼 있어 군산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인건비 상승·인력난 농가 부담 완화 최선

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계 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농번기 등 계절 적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농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 정읍시가 농촌 인구 감소와 농번기 인 할 수 있게 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 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 2026년도 최저시급(1만 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과 휴게·휴 일을 보장하는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 을 지켜야 한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가 일손이 크 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 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 고용주로 선정된 농가는 근로자에 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주민 생활 밀착 개선

규모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환경 규제 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9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지역 특성 과 주민 요구를 세심히 고려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생산관리지역

정읍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해 소 에서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진 점 이다. 상수도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바닥면적 300㎡ 이하 규모의 휴게음식점이 허용된다. 그동안 생산관 리지역은 1차 산업 보호를 위해 건축이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나 관광객 대상 휴게시설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비도시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주민자치 다이로움 한마당' 공동체 화합 다져

프로그램 발표·전시 등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익산시가 주민자치 활성화와 공동체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18일 실내체육관에서 주민 자치협의회와 함께 '제10회 익산시 주 민자치 다이로움 한마당'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하나된 익산, 꽃피는 주 민자치'라는 주제 아래 △주민자치 발 전 유공자 표창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명랑운동회 △ 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등 1,000여 명이 함께하며, 지역 공동체 을 얻었다. 의 힘과 화합을 보였다.

물단'의 식전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들에게 표창이 수여돼 주민자치 활동 리도 제공했다.



의 성과를 되새겼다. 주민자치센터 프 주민자치 활동 사진전 등 다채로운 프 로그램 발표회에서는 풍물, 댄스,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분야의 26개 참가팀이 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과 시민 무대를 꾸며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

2부 행사는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개회식은 지난해 익산시 주민자치 프 명랑운동회와 재능기부 공연이 열려 로그램 경연대회 우승팀인 '함열읍 풍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으며, 6개 읍·면· 동에서 출품한 서예·문인화·캘리그라 이어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피·천아트 작품이 전시돼 풍성한 볼거

박종철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 치는 주민이 주인으로서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행사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하나된 익산, 꽃 피는 주민자치라는 주제처럼 주민 여 러분의 열정과 연대가 익산의 미래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 것"이라며 "시에서 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 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지황·쌍화차 매력 담은 '어울림 한마당'

정읍시가 지황과 쌍화치를 주제로 한 공모, 참여 놀이마당이 열리며 흥겨운 '정읍 지황·쌍화 이음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시민과 관광객 1000여 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까지 쌍화차거리 일원에서 열렸다. 정 읍시를 비롯해 정읍지황융복합시업단, 전북과학대학교, 정읍쌍화차거리협의 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쌍화차 판매 및 체험 부스, '정읍쌍화차' 5행시 분위기를 더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정읍 지황·쌍화 이음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지황의 가 행사는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9시 치를 직접 확인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 으로도 지황과 쌍화차를 중심으로 지 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하는 행사를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고준위폐기물특별법 개선 촉구

심덕섭 군수 "원전인근 지자체 별도 재정 지원 대책 반드시 마련돼야"

심덕섭 고창군수가 18일 오전 전북 특별자치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공 동 기자회견에 참여해 "시행을 앞둔 고 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골 자로 한 '특별법 시행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원전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 익현 부안군수(원전동맹 협의회장)가 함께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등을 골자로 한 '고준위 방사성폐 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 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을 의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해당 법령에서



심덕섭 고창군수가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해 "원전 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고창군>

'주변지역'을 저장시설 반경 5km로 한 정한 것은 핵발전소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 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기준 이다"고 성토했다. 이는 2011년 후쿠시 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 역이 30km로 확대된 국제적 현실을 외 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더해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

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이 일부 원 전 소재지 외에도 분배되기 시작됐지 만, 고창·부안·삼척·양산·유성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원전인근 5개 지 자체에 대한 별도 재정 지원 대책이 반 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성주김제시장,(사)새농민회 명예회원위촉

농업인 지위향상 도모

김제시 정성주 시장이 지난 17일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중인 (사)한국새농 민회로부터 명예회원으로 위촉됐 다.

면 (사)한국새농민회는 자립ㆍ과 학·협동하는 새농민 운동의 확산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농업경영과 혔다.

기술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하며 농 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운영 중인 전국적인 조직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의 농업 은 급변하는 기후와 시장환경 속에 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김제시는 언제나 농업인과 함께 호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 흡하고 농업 농촌이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농민회와 변화 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의회, 추경예산안·22개 안건 의결

제292회 임시회 폐회

1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9일 제1차 본회의 를 시작으로 10일에 각 상임위원회별 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했으며, 11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마지 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 례안, 기타 안건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의 심의 결 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259억원 등을 포함해 총 425억 3,889만원이 증 액된 1조 2,739억 6,878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지난 해 △시민 안전과 지역 재생을 위한 빈집 정비 촉구(오승경 의원) △김제 시 자원 순환센터 설립 촉구 제언(이 정자 의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정책 확대 촉구(문순자 의원) △ 김제의 미래 농업! 우장춘 박사의 꿈 을 현실로!(전수관 의원) 등의 주제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서백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제2 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민 여러분 께 지급돼 민생 경제 회복의 디딤돌 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0월 8일부터 열리는 김제 지 평선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 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히 준비해달라" 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새만금항 신항 특성화 실증단지 구상

그린에너지·콜드체인 융복합 허브 도입

김제시(정성주 김제시장)가 풍부한 농생명·식품 산업과 새만금 재생에너 지·그린수소 산업 기반을 근거로 새만 금항 신항에 '그린에너지·콜드체인 융 복합 허브'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18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시의 회,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항 신항 친환경 콜드체인 산업 실증단지 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 해상에 조 성중인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내부개 발 지원과 동시에 환황해권 거점하만 육 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5만톤급 6선석, 2040년까지 3선석을 추가해 총 9개 선석 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2선석 으로 조기개항을 앞두고 있으나, 항만 배 후권역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 사업과 배



후부지 개발이 지연돼 초기 물동량 확보 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연구진은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취지를 살려 신산업 지원과 에너지 산업 육성 기조에 부합하는 '그린에너지·콜드 체인 융복합 실증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금 지역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실 증하는 거점으로 개항 초기 부두 공간을

활용해 본격적인 배후권역 조성 시점에 맞춰 준비하는 취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본 용역을 통해 새 정부의 항만 정책기조에 걸맞는 항만 운 영계획을 수립해 새만금항 신항이 환황 해권 궁주항만으로 발선할 수 있도록 이 실증단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 김제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당산제 미래 무형유산 가치 발굴' 학술대회

전승 현황·가치 발표

(원장 김영렬)은 19일 오전 10시부터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안 당산제 의 미래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발굴'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

이번 학술대회는 총 6편의 기조발 표 및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누 어 진행한다. 기조발표는 △미래무형 유산 사업의 취지와 목적(박종오 전 △부안 당산제의 역사와 시대별 변화 양상(서종원 한국민속예술연구원 교 수) △부안 당산제의 지역별 전승 실 태와 현황(이영수 인하대 교수) △부 안 당산제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고유

성(홍태한 전북대 교수) △부안 당산 제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미래(김성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부안문화원 식 전북대 교수) △부안 지역 줄다리 기의 보편성과 특수성(고대영 당진시 청 학예사) 순으로 이뤄진다.

> 이어서 현재 부안 마을 곳곳에서 당 산제를 전승하고 있는 보존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부안 당산제와 관련한 현실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학술대회 를 통해 부안 당산제를 지역 대표 문 남대 교수)을 시작으로, 주제발표는 회자원으로 육성하고, 미래 무형유산 으로서 안정적인 전승기반이 마련되 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365일 아이돌봄센터' 운영 모금 총력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 모금 개시·홍보 최선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오는 2026년 7월경에 개관 예정인 '김제形 365일 24 간을 가졌다. 시간 아이돌봄센터'운영을 위해 지난 8 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개시하고 홍보에 총력을 기울 지정기부사업에 기부했다. 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에는 전북특별 자치도 도 청사 1층 로비에서 도청 직 지자체 행사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원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김제시 보부스를 운영해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고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행사를 실시하고, 예정이다.

김제시의 첫 지정기부사업인 '김제形 365일 24일 아이돌봄센터 운영' 및 고 보면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 볼 수 없는 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와 고향사랑 기부 시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을 포함한

이날 김제 출신 도청 공무원을 비롯 한 도청 직원 33명이 현장에서 김제시 지 않아도 아이와의 관계만 명확히 증

제데이, 2025 무차별대로 축제 등 타 "김제시가 지정기부사업을 시작할 수

정성주 김제시장은 "아이를 키우다 순간들이 있다.

김제시는 단 한 시간이라도 부모와 김제시의 특산품을 시식·시음하는 시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김제에 주소가 돼 있 빙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시는 이후에도 전북현대 축구경기 김 때문에 기부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시고르청춘 윤나연 대표, 행복농촌 만들기 '금상'

우수창업가분야최고 영예

부안군의 청년 로컬 기업인 ㈜시고르 청춘의 윤나연 대표가 지난 17일 과천시 한국마사회에서 열린 '제12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우수창업가 분야 터 개발과 지역기반 체류형 관광프로그 최고 영예인 금상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 촌공사가 주관하는 '행복농촌 만들기 콘 테스트'는 농촌 지역개발의 우수시례를 발굴·확산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전문가 평가단의 심시를 거쳐 마 을만들기 및 농촌만들기 각 7개소, 빈집 10명을 선정했다.

윤나연 대표는 부안군 13개 읍면 캐릭 램 운영 등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창의 적으로 재해석해 농촌마을의 활력과 브 랜드 가치를 높인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 으며, 모범적인 농촌 창업 사례를 통해 농촌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 수창업가 분야 최고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수상에는 부안군 농어촌종합지 원센터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다. 센터 재생 3개소 우수주민(활동가, 창업가) 는 콘테스트 참가 준비와 발표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며 수상을 위해 힘을 보탰다.

> 윤나연 대표는 "앞으로도 부안이 지닌 다양한 지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스토리 와 감성을 부안만의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번 수상을 계기 로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도전과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웰파크시티,관광산업활성화협약

티가 18일 고창군민의 문화 향유 기 회 확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혔다.

협약은 △고창웰파크시티와 연계 한 관광 분야 협업사업 개발 △고창 관광객 유입 증가 및 관광산업 발전 을 위한 홍보 마케팅 연계 추진 △고 창군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양 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반기 방장산 자연자원 활용 생태 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광 행사 '바이오블리츠', 전 국민 대

고창문화관광재단과 고창웰파크시 상 웰니스 및 치유 프로그램 시범운 영, 관외 관광지 대상 연계 치유 행사 등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2026년도 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 에는 다양한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조창환 상임이사 는 "국내 최고의 웰니스 관광지인 고 창웰파크시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 게 돼 기쁘다"며 "향후 우수 웰니스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과 문화향 한 문화 사업의 추진 등을 체계적으 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창군이 국내 최고의 치유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신청 22일시작

부안군은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부안군은 군민 1인당 30 만원인 자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이어 2 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 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6월 18 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민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대상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이며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부 안사랑상품권(카드형)·선불카드(무기명) 중 선택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조회는 오 는 22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차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온리 인)과 읍·면사무소(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히

권익현 부안군수는 "정부의 2차 소비쿠폰 (10만원)과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추가 지 원(30만원)이 부안군민, 희망찬 부안경제에 활력을 불어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선운산 꽃무릇, 28일까지 절정…가을 정취 만끽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이번주 토요일(20일)부터 약 열흘가량이 꽃무릇 절정 시기를 이룰 것으 로 예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운산 꽃무릇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명소로, 꽃과 시찰 경관, 맑은 계곡이 조화 를 이뤄 걷기 좋은 산책길을 제공한다. 붉 게 물든 꽃길을 따라 걸으면 특별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꽃무릇은 꽃과 잎이 서로 다른 시기 에 피는 독특한 식물로 "만날 수 없는 인연' 을 상징한다. 붉게 물든 꽃밭 속을 거닐면 누구나 로맨틱한 분위기와 함께 가을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입장료 부담없이 선운 산의 가을을 즐길 수 있으며, 주차시설도 중분히 갖주어져 있다"며 "안선하고 쾌석 한 관람 환경을 위해 시설 관리와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 의료서비스 주민들 '호응'

부안군은 18일 부안스포츠파크 체육관에 서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 의료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부안읍·동진면·백산면·주산 면의 고령자와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약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 주민 들에게는 양·한방 진료뿐 아니라 치과·안 과 검진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됐다.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 부 공모사업으로, 부안군은 지역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 업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 지역에서 의 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의료지원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복지서비스"라며 "앞 으로도 촘촘한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 행정 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안 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군, 국가예산 21.6% 증액 '청신호'

내년 예산안 수소·문화·SOC 등 주요 핵심사업 1,315억 규모 반영 5년 연속 5천억원대 확보 달성

완주군이 1,315억 원 규모의 주요 핵 정부예산안에 반영시켰다. 이는 올해 주요 핵심사업 반영예산안 대비 21.6% 증가한 수치로, 완주군은 5년 연속 를 켰다.

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안호영 국회의원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의 협력 아래 사업별 맞 력 확충과 군민 안전·편의 증진에 직결 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에 국 되는 핵심 과제로, 향후 지역 발전의 기 비 필요성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해 성 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심사업을 포함한 국가예산을 내년도 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2.8억 원)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76억 원) △ 선다. 군은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력해 완주 운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0억 원) △국립 사회적경제 5,000억 원대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 인재개발원 건립(3억 원)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482억 원) 군은 주요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UPS) 안전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 기술 개발(115억 원) △수소차 폐연료 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과의 긴 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 센터 구축(35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완주군의 미래 성장 동

군은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주요 반영사업으로 △수소상용차 전 심의 단계에서 미반영 및 과소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추가 확보에 나 대응 전략을 고도화하고, 부처 및 국회 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설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현재에 안주하 지 않고, 마지막 국회 심의까지 흔들림 없이 대응해 최종적으로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두' 준비

정부시범 공모 절차 본격 돌입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조례 '만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보편적 복지를 선도하는 순창 군의 발빠른 준비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해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사업으로, 공모 절차는 9 월 29일~10월 13일 접수, 10월 15일 발 표평가, 10월 17일 최종선정으로 진행 된다.

군은 시범사업 도입을 선제적으로 예 다. 측하고 대응해 왔다. 순창군은 지난 5 월 예산 가용성 분석 등 실무회의를 시 작으로 전담조직인 '기본사회 T/F팀'을 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 농림부, 전북도 등을 방문 해 시범사업 필요성과 준비 상황을 설



지난 15일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순창군의 '발 빠른' 공모 준비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순창군>

군은 7월부터 9월까지 국회와 중앙부 처, 연구원 등을 14차례 이상 찾아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공모계획 발표 이후 신설하고, '순창형 농촌기본소득' 모델 에는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주민 의견 은 민선 8기 보편적 복지 정책의 완성 을 반영한 실행 모델을 완성 중이다.

현재는 공모계획이 발표됨에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군민 참여형 실행 모 명했으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과 델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9일

추진단 구성으로 행정적 기반을 갖췄 범군민 포럼이 개최되고, 24일 국회에 서 열리는 농촌기본소득 우수사례 포 럼에서 최영일 군수가 직접 '순창군 보 편적 복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촌 기본소득 모델"이라며 "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농 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 형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추석 전 농어업인 공익수당 61억 지급

1만814명 혜택 인원수별 지급 완주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완주군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규모의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명절 준비와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어업 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으며, 지난해 인 공익수당'을 이달 중 지급한다.

존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전면 지급된다. 개편돼 더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 게 된다.

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에 등록,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1만 814명을 최종 지급 대상 지 신청을 받았으며, 영농철 바쁜 일정 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 61억 원 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위해 6

원씩이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 올해부터는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 인으로 등록돼 있다면 인원수에 따라

종사할 경우 총 90만 원을 지원받아 명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 군은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 절 차례 준비나 선물 구입 등 비용 부 하고 있다.

이번 공익수당은 지난 3월부터 5월까 월 13일까지 신청 기간을 한 차례 연장 지급 금액은 1인 경영체는 60만 원, 2 했다. 이후 8월까지 자격 검증을 거쳐 와 동일하게 완주사랑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군은 이번 공익수당 지급으로 지역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모두 농어업에 내 소비를 촉진해 어려운 시기에 지역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전통혼례 체험 하반기 재개

남원특화 전통 프로그램 새 단장 전통혼례 실제 예식 행해지기도

남원시는 이달 20일부터 지역 대표 전통문화 콘텐츠인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과 전통혼례체험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춘향전을 배경으로 한 신관사또부임 행차 공연은 화려한 취타대를 선두로 기수단, 사또와 군관, 육방이 등장해 재 치 있는 재담과 관객 참여형 연출을 선 보이는 남원의 대표 문화 콘텐츠다. 특 히 올해는 새로운 공연 의상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추가해 현장감을 높였으 며, 매주 토요일 광한루원 일원에서 진 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한국 전통 행되는 퍼레이드는 남원을 찾는 관광 객에게 흥과 멋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체험 행사 사할 예정이다.

전통혼례체험은 우리 고유의 혼례문 응을 얻고 있다. 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혼례 단 퍼레이드와 전통 의식 절차 체험 등 영을 통해 남원의 대표 문화관광 자원 된다.



남원시는 오는 20일부터 지역 대표 전통문화 콘텐츠인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과 전통혼 례체험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남원시>

으로 구성된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 을 더욱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체류시 문화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를 넘어서 실제 혼례로도 이어져 큰 호 주 토요일 오후 2시, 전통혼례체험은 9

남원시는 지역특화 상설프로그램 운 일 오전 10시 광한루원 일원에서 진행

간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신관사또 공연은 11월까지 매 월 20일, 9월 27일, 10월 18일 3회 토요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종량제봉투 온라인 주문배송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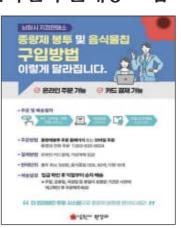
전 과정 전산화 통합관리 지정판매소 편의성 향상

남원시는 종량제봉투의 재고·주 문·판매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지 정판매소 대상 온라인 주문 및 카 드결제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고 관리·주문 접수·배 송 업무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종량 제봉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 다. 이를 통해 행정의 업무 효율성 은 물론 재정 집행의 투명성도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전화 터넷 주문과 카드결제가 가능해졌 다. 지정판매소는 별도의 프로그 램 설치 없이 웹 접속만으로 주문. 결제가 가능해져 판매소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려는 지정 판매소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되며, 전화 주문은 063-620-6924 다.



로 하면 된다.

남원시는 본격 운영에 앞서 9월 까지 동 지역 판매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해 온라인 주문 절차를 안내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주문에 더해 PC·모바일 기반 인 점검한 뒤, 10월부터 전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읍・면 지역으로 단계적으 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시스 템이 판매소의 편리한 주문・결제 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효율적인 유통 구조 정착과 투명한 예산 관 를 부여받아 시스템을 사용하면 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재난안전 협약 위원회 개최…대응체계 강화

군-유관기관 공동체계 공식화 지역 맞춤 실질적 대응방안 논의

순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군수실에 서 지역 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난 관리체계 구축 협약식을 진행하고, 이 어서 제2차 재난안전관리위원회 회의 를 개최했다.

협약식에서는 순창군과 유관기관이 재난 대응 공동체계를 공식화하고, 긴 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의 공동 대응,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교환 체계 확립, 대규모 재난 시 자원과 장 비 공동 활용 등 실질적인 협력 시스 템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 열린 제2차 재난안전관리위 소방, 경찰, 보건, 교육, 민간 전문가 졌다.



순창군은 지난 17일 지역 내 안전망 강 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협약식을 <사진=순창군> 가졌다.

등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참석해 최근 국내외 재난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특 성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 의했다.

특히,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 방 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대응 강화와 함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안), 순창장류축제 및 떡볶이 페스타 원회 회의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안전관리 계획 등 주요 안건이 다뤄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군의회,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 촉구

정례회 개회 조례안 13건 심사 기본소득 시범사업 건의안 채택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등이 순창만의 강점이라고 주장했다. 29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 이어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 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획 수립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원발의 조 선정 등 생활여건 개선에 앞장서온 례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13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순창군이 농어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특히 신정이 의원이 대표 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를 신설하고 예산 분석, 전문가 자문, 고 주장했다.

조례 제정 준비 등을 통해 선제적으 로 준비해온 점과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으로 최근 2년간 전북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17일 도내 인구증가 지역으로 선정된 점 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적지임을

또한 조정희 의원도 5분 발언을 통 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신 의원은 순창군이 '기본사회 T/F' 로 순창군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제15회 동상면민의 날 성황리 개최

유희태 군수 등 600여명 참석 유공자 표창 동호회 연주 무대

완주군 동상면민 운동장에서 '제15 회 동상면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문 화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기관·단체장, 출향인사, 동상면민 등 가 열렸다. 6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 앞서 완주군 동상면 생활문 화센터 수강생들이 준비한 기타 연주 와 라인댄스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길잡이 풍물패가 풍성한 울림으로 무 탈과 번영을 기원하며 흥을 돋웠다.

기념식에서는 완주군과 동상면 발 전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군수상 을 비롯한 7개 분야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진 체육행사는 권원택 동상면 체 육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다. 지 난 대회 우승팀의 우승기 반납과 선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 수 대표의 선서에 이어 리별 고리걸 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내 기,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경기

> 오후에는 문화행사로 마을 대항 노 래자랑이 개최됐다. 축하공연으로 동 상면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의 연주와 완주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트 로트 가수 현진우 씨의 무대가 펼쳐 졌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피지컬AI·코딩 초등학생 창의체험 교육 운영

완주군이 인공지능(AI)과 코딩을 활용한 창의체험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군은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025 교육 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완주군 미래인 재 피지컬 AI 교육'을 운영하며, 참가 학생 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AI 자율주행 자동차(알 티노)를 활용해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 시 스템의 원리와 센서 제어 코딩을 직접 배우 고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매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 행되며, 삼례읍·이서면·고산면·구이면 등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완주학당 지정 장소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초등학 생으로, 반별 10~15명 내외로 운영된다. 수 업은 총 4차시로 진행되며, △AI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 이해 및 후륜 모터 제어 △ 조향·소리 센서 코딩 △조도·거리 센서 코 딩 및 후진 주차 실습 △종합 자율주행 코 딩 실습 등 단계별 체험학습으로 이뤄진다.

현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서 오는 23 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피지컬 AI 실증도시로 도약하는 데 함께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섬진강미술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전 개최

순창군은 이달 20일부터 '세계서예전북 비엔날레-순창展'을 섬진강 미술관에서 개 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5 서예, 전북의 산하를 날다'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서 동시에 열리는 대규모 서예 행 사로, 순창에서는 지역 서예의 정체성과 흐 름을 드러내는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순창 출신 및 지역에서 활 발히 활동 중인 서예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서체와 기법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 이다. 작가들은 각자의 개성과 예술적 시선 을 담아, 서예가 단순한 글씨 쓰기를 넘어 선 고도의 예술 장르임을 관람객에게 전달 할 계획이다.

특히, 전시를 통해 순창 서예의 계보와 흐 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서예 애호가 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깊은 감 동과 신선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장소인 섬진강 미술관은 아름다운 섬진강변에 위치해 가을 정취를 느끼며 작 품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운 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 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입장료는 무료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 '한달살기' 게스트 하우스 4차 입주자 모집

남원시가 한달살기 게스트하우스 입주자 모집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오는 22일까 지 10일간 4차 입주신청을 받고 있다.

남원시에서 운영 중인 임시거주시설인 주생 체재형 실습마을 내에 있는 게스트 하 우스에서 1개월 간 거주하며, 남원시에서의 귀농·귀촌 사전 생활을 미리 접해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는 신청서를 토대 로 그린대로 귀농귀촌홈페이지 및 남원누 리시민 가입 여부와 더불어 신청연령, 귀농 교육 수료 등을 참고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거주 시설의 크기는 약 22㎡의 규모로 기본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은 완비되어 있고, 보증금 50만원에 월 150,000원의 사용료로 30일간 이용할 수 있

남원시 한달살기 게스트하우스는 올해 12월까지 운영되며 세부내용은 남원시 홈 페이지 및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에 서 확인 가능하고, 각종 안내와 신청 등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새삶터정책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 농업홍보전시관 운영 체험·전시로 장수농업 알린다

장수군은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리 는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 기간 동 안 의암공원 다목적체육관 내에 장수농업 홍보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 지 상시 운영되며, 장수 농·축산업의 현재 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정책 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과 수직농장, 사과 다목적 비가림 시설 등 을 전시해 미래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선보 이고, 청년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스마트팜 추진 현황과 장수농업의 비전도 소개한다.

또한 읍·면별 특화품목과 가공상품 전시 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 리고, 농업뿐 아니라 축산, 국제산악관광, 생태관광 등 장수의 다양한 자원도 함께 홍 보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주민 마음 건강 챙긴다! '자살예방주간' 실시

무주군이 마음 건강을 돌보며 생명 존중 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 해 19일까지 '자살예방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반딧불축제 현장 에서는 장기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증 희망 등록을 독려하기 위한 전국 합동 캠페인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이 캠페인에는 무주군을 비롯한 전국 125 개 지자체와 10개 공공기관, 42개 의료기 관 등 177개 기관이 동참했다.

11일에는 무주읍 무주반딧불시장 북카페 에서 '생명 존중 찻집'도 운영했다.

19일까지는 무주읍 행정복지센터 등지에 서 생명존중안심마을 참여 기관·단체 종사 자 및 이용자,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 살 예방 및 안부 묻기 캠페인'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109)와 SNS 상담(마 들랜_24시간 자살예방 상담 채널) 위기 대 응 사회서비스 등이 안내되고 있다.

이지영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 은 "올해는 생명을 이어주는 장기기증, 마 음 건강을 돌보는 일의 중요성과 실천 방 법 등을 나누며 자살예방주간을 보내고 있 다"라며 "앞으로도 2만 3천여 무주군민들 이 편안한 마음,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 도록 다양한 공감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 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농촌자원 활용 향토음식 교육 진행

진안군은 향토음식과 영양 가득한 전통 음식을 배워보는 제철농산물 이용 무료 강 좌를 지난 17일 관내 여성농업인 1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정미경 전통음식아카데미 원장이 전문 강사로 참여해 △향토(전통) 음식 이해 교육 △들깨시래기 된장국, 새싹 비빔밥, 두부김치, 고추장 만들기 등을 시 연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조리 실습과 시식 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들어 보니 집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며 큰 호응을 보였 으며, 전통음식의 가치를 몸소 느끼는 시간 이 됐다.

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2월에 도 한국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강좌를 열 예정이다. 다음 강좌에서는 전통 음식 만들기와 장 담기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전통 식문화 계승에 더욱 집중할 계 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해썹(HACCP) 인증 품목 확대

'캔디류' 추가 7개유형으로확대

진안군이 운영하는 농산물종합 가공센터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인증 품목을 확대해 지역 농 업인의 가공 역량 강화와 가공품 안전 역 특산품을 활용한 스틱젤리 등의 생 성 확보에 나선다.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역 농산물 등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소 규모 농가의 창업 지원을 위해 장비 등 을 지원해주며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 을 돕고 있다.

이에 가공센터는 지난 5월 △인·홍삼 음료 △액상차 △과·채가공품 △과·채

형에 대해 HACCP 재인증을 받았다.

받아 가공 가능 품목이 총 7개 유형으 이 마련됐다. 로 확대됐다.

군은 이번 캔디류 품목 인증으로 지 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원재료 입고부터 제조·가공·포장·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 를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히 관리해 안 전한 식품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 확대로 가공센터에서 생산

주스 △고형차 △기타가공품 등 6개 유 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가 한층 강화됐으며, 진안군 농업인들이 보다 이어 올해 9월 '캔디류'를 추가 인증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 현재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농축기, 추출기, 동결건조기 등 50여 대의 장비 들을 활용해 홍삼농축액, 동결건조, 잼 류 등 8개 유형 46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기타, 가공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농 업인은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 과(063-430-8632) 또는 농산물종합가 공센터(063-430-8634)로 문의하면 된 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추석 연휴 전 농민공익수당 지급

7,283명 농업인 36억원 지급

임실군이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지 난 15일부터 총 7,283명의 농업인에게 총 36억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 급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 성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 다.

개편됐다.

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받아 자격요건을 검증한 결과, 지난해 보다 1.27% 증가한 7,283명을 최종 지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권)를 수령할 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농민공익수당은 유흥업소, 홈쇼핑, 건 월 31일까지다. 강보험료, 택시요금 등 일부 업종을 제

올해부터 지원 대상은 농가에서 농업 외한 관내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용할 인으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60만 수 있으며, 특히 지역화폐와 달리 연 매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으로 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 지급 대상자는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 수 있으며, 카드 사용기한은 2026년 8

> >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2025 레드푸드레이스 in 승마로드' 개최

스포츠 관광 융합형 러닝 축제

장수군은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11 시까지 장수 승마로드 일대에서 제19 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특별 프로그 램으로 '2025 레드푸드레이스 in 승마 로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장수군을 대표하는 한우 랑사과랑 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 관광 융합형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장 수군 트레일레이스 기업인 락앤런(대 표 김영록)이 주관한다.

마로 오미자 5km, 토마토 10km, 사과 16km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총 300여 명(선수 270명, 운영스탭 30명) 이 참가한다.

출발은 장수말역사체험관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참 하고, 배번과 완주 메달, 반다나, 모바일 기록증 등이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대회는 장수의 대표 레드푸드를 테 장수군은 오는 20일 장수 승마로드 일대에서 제19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특별 프로 그램으로 '2025 레드푸드레이스 in 승마로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망이다.

최훈식 군수는 "레드푸드레이스는 장

대회 당일에는 러닝 대회뿐만 아니라 수의 자연과 특산물을 함께 즐길 수 있 한우랑사과랑축제와 연계한 플리마켓, 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군민과 관광 로컬 브랜드 부스, 시민 교류 프로그램 객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등이 운영되어 참가자와 방문객 모두 "앞으로도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다 가자는 제한시간 3시간 안에 완주해야 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가 될 전 양한 콘텐츠로 활력 있는 장수를 만들 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N치즈축제 특별한 맛···저지종 숙성치즈 '천하일미'

축제 5일간 매일 시식회 열어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5 일간 열리는 2025 임실N치즈축제에서 는 평소 접하기 힘든 저지종 원유를 활 용한 프리미엄 숙성치즈를 맛볼 수 있

올해로 11회째 열리는 임실N치즈축 제는 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임 실읍 일원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축제 기간인 5일 동안 매일 치즈테마파 크 내 지정환홀과 치즈역사문화관 입 구에서 저지종 원유로 만든 숙성치즈 시식회가 열린다.

축제 방문객들은 지정환홀과 치즈역 사문화관으로 가면 임실N치즈 중 맛이 좋고, 영양분이 높은 고품질 저지종 원 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숙성치즈를 시 식할 수 있다.

또한, 성인 다이어트와 뼈 건강에 좋 은 무가당 요거트 연계 특별 프로그램 을 구성해'임실N치즈'의 깊은 풍미를 제대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임실N치즈 유제품들을 축제 기간 5일 동안만 20% 파격 할인해 판매한다.

임실N치즈축제는 '이제 임실! 함께해 요 치즈!'라는 주제로 10개 분야 70여 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색다른 볼거 리와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가득 선사 할 예정이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청정 임실에서 자란 암소 한우와 12개 한 행사로는 평소 할인을 잘 하지 않는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엄마표 향토음식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심 민 군수는 "축제장 일대를 가득 메 운 천만송이 국화꽃 경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관광 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국화꽃 향연과 청정 임실에서 자란 암 소 한우와 엄마표 향토음식까지 맛있 숙성치즈 외에 풍성한 먹을거리로는 게 드시고, 임실의 참멋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농부, 신제품 마늘 할루미치즈 출시

22일부터온오프라인구매

농업회사법인 임실농부(주)(대표 오광진)가 구워 먹는 '마늘 할루미 치즈' 제품을 개발해 특허출원(출 원번호:10-2025-0131578)과 동시 에 신상품으로 출시한다고 18일 밝 혔다.

22일부터 네이버스토어, 전북생생 장터,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과 임실 있다.

정환 신부님의 공동체 가치를 지향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전주한옥마 드러냈다. 을 판매장 개설 등 임실치즈의 브

랜드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 다. 현재는 동물자원학을 전공한 창 업자의 아들이 젖소 사육과 제품 연구개발을, 전문경영인과 딸이 회 사 운영을 이끌고 있다.

이번 연구개발을 진행한 이준학 (28세) 임실농부(주) 연구부장은 "마늘 할루미치즈는 고기 구워 먹 마늘 할루미치즈 신상품은 오는 을 때 마늘을 함께 먹는 한국인의 식생활 특성을 반영해, 마늘의 영양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신선한 치즈하우스 판매장에서 구매할 수 마늘 향과 치즈의 풍미를 잘 느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했다"며 임실농부(주)는 2013년 창립, 지 "아마도 남녀노소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싶다"고 자부심을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국가도로망 확충 '총력'

기재부 찿아 국가계획 반영 요청

무주군이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재 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를 찾아 주요 도로 기반시설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 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원들은 이날 허윤홍 경북 성주군 부군 수와 함께 △무주~성주~대구 고속도 다. 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축 교통량 분산, △기능 보완에 기여 하고 교통 소외지역인 무주와 성주권

의 접근성,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노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위주 국 가간선도로망 체계에 비해 낙후된 동 서축 연계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들 어 △영·호남 연결성 제고와 △국토 최정일 부군수를 비롯한 건설과 직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

이 외에도 무주군은 △무주 무풍~김 천 대덕(국도 30호) 2차로 개량 사업 두 지역은 이 자리에서 무주~성주~ 과 △무주 설천 심곡~두길(국도 37호) 대구 고속도로가 △통영~대전 고속도 2차로 개량 사업에 대해서도 '제6차 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해 경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정읍-신계룡 노선을 포함한 진안군경 과 4개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인 해 발생하는 환경파괴 및 주민피해에 대응하고자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 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실효성있는 혔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인 내년 6월 겠다"라고 밝혔다. 30일까지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에 대 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 1차 본회의에서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황을 청취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 검하는 한편,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 하고 총 6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이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송전선로 는 이명진의원, 부위원장에는 이루라 건설 사업의 추진 현황과 진행 상황을 청취할 계획이며, 방청을 희망하는 주 옥·김민규·김명갑·손동규 의원이다. 민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 현장을 방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18일 신 문하거나 진안군의회 홈페이지를 통 해 신청할 수 있다.

> 이명진 위원장은 "송전선로 건설 문 제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지난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 열린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 이에 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에 관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장에 의원이 선출됐으며, 위원으로는 이미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제19회축제서 저탄소 인증 한우 선보인다

장수군은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련된다. 의암공원과 누리파크에서 열리는 제 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에서 명품 '장수한우마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우마당은 2,500석 규모의 대 한다. 형 홀텐트로 마련되어, 방문객들이 시 원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장수의 청명 한 가을과 함께 한우의 풍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정부 인증을 받은 저탄소 장수한우를 직접 시식하 고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마

아울러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협약을 맺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장수·장계농 장수한우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협, 무진장축협, 장수군유통사업단은 장수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

> 구이용 주요 부위(1+등급 기준)를 100g당 안심 11,900원, 등심 9,900원, 채끝 11,400원에 제공되며, 이 외에도 갈비·토시·치마·부채·제비·국거리· 사시미·육회 등 다양한 부위를 저렴하 게 만나볼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 안성면지사협, 어르신 안전 손잡이 설치 추진

무주군 안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 원장 김일중, 민간위원장 김장호)가 어르신 일 상생활 행복 증진에 앞장서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협의체 회원들은 안성면에 거주하는 거동 불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안 전 손잡이 설치 사업'을 마쳤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과 일상 편 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독거 및 저소득 어르신이 거주하는 29가구의 침실과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다.

김장호 안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 원장은 "어르신들이 화장실이나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낙상사고도 잦아 손잡이 설치를 마음먹게 됐다"라며 "앞으 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발굴에 더 욱 힘써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 다.

/무주=최의호 기자



고창 고창읍協·새고창로타리,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추진

고창군 고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 원장 임진용, 이하 지사협)와 새고창로타리클 럽은 지난 15~17일 월산마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은 새고창로타리 후원과 고창읍복지허 브화기금,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통합사례관 리사업 등 1000만원 상당의 예산으로 진행됐 다.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이중창 설치 쓰레 기 및 폐기물 처리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특히 주거 내 과다한 물품 적치와 생활 불편 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따뜻한 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저장강박증이 있는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한 일상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주민은 "집 안이 너무 낡고 어수선해 생 활하기 힘들었는데, 도배도 새로 해주시고 쓰 레기 정리까지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며 "따뜻한 관심과 도움 덕분에 마음까지 새로워 지는 기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 특별위원회' 출범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 전략의 성공을 위해 혁신자치 특 결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변 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으로, 국민 있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날 윤난실 다.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현장 경험 이 풍부한 사회혁신·주민자치 전 서 활동하며 단체장과 의회 중심 의 척도인 주민 참여가 반드시 필

균형성장주민자치권확대 문가 등 총 19명을 위촉해 구성했

김경수 위원장 인사말에서 "혁 신자치는 사회혁신과 주민자치를 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며 "혁 혁신자치는 주민과 공동체가 주 신자치특위가 정치와 민주주의의 도해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사회 위기를 현장에서 풀어갈 해법을 찾아 잃어버린 3년을 신속히 극 이 정책 과정의 주인이 된다는 이 복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며 현 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 변화를 이끌 주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



의 운영으로 주민 참여가 부족하 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자 윤난실 위원장은 "지역 현장에 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민주주 다"는 포부를 밝혔다.

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

/장정철 기자

임실군-오수관촌농협, 농촌왕진 버스 운영

280여명농업인참여'큰호응'

11일 오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 협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환), 농 협임실군지부(지부장 이재문)가 참 여한 가운데 올해 두 번째 '농촌 왕 진 버스'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왕진 버스는 한방진료(자생 의료재단), 구강검진 및 교육(원광 대 치과), 검안 및 돋보기 지원(다비 치안경) 등 실생활에 밀접한 의료서 다. 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을 찾기 어려운 고 령 농업인들과 의료 시설이 부족한 임실군과 오수관촌농협이 지난 농촌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 특히, 당초 계획보다 많은 280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해 다양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받으며 큰 호응을 얻

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도 농 상생과 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임실=한병열 기자





정읍도정공장안신대표, 장학금 200만원기탁

지역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을 뜻을 전했다. 위해 장학금 200만원을 정읍시민 한편, 정읍시 수성동에 위치한 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에 전념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 돈의 가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 록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며 "앞 난해에는 약 2만 톤 이상의 가공 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역 농업과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안 대표님의 뜻 오고 있다. 을 소중히 담아 장학사업을 내실

정읍도정공장 안신 대표는 18일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감사의

정읍도정공장은 정부양곡을 관 안 대표는 "정읍 학생들이 학업 리·가공하는 도정 시설로 하루 53 식량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생명존중교육 실시

터장 정일신)는 지난 17일 한빛중 육이 진행됐다. 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는 특별한 사람이다'를 주제로 극 을 전했다. 한 상황 대처 방법, 학교 내 친구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 돕기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살을 고민하는 친 이번 교육은 OECD 국가 중 자 구가 보낼 수 있는 경고 신호를 알 살률 1위라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배 현실을 개선하고, 정서적 변화가 울 수 있었다"며 "주변 친구들에 큰 사춘기 청소년들의 생명존중 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생명지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나 이 역할을 실천하고 싶다"고 소감

/남원=정하복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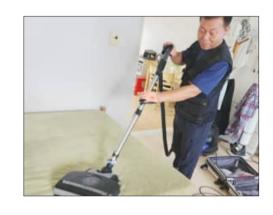
익산지역 세무사회,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기탁

익산시는 1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익산지 역 세무사회(회장 권의찬)'와 기탁식을 진행 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익산지역 세무사회는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을 전달했다. 기탁된 온누리상품권은 익산시 드림스타트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 가정에 배부될 예정이다.

익산지역 세무사회는 세무사 제도 창설 64 주년과 마을세무사 제도 9주년을 맞아 전통시 장과 소상공인을 돕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탁에 나섰다.

익산지역 세무사회 관계자는 "큰 금액은 아 니지만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 생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소룡동지사협, 저소득 가구 매트리스 케어 사업 추진

군산시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저소득 가구의 건강과 쾌적한 잠자리 제공을 위한 '저소득 가구 매트리스 케어' 사업을 지 난 17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룡동의 대표 복지사업으로 지 난해 처음 선보인 후 대상자들의 큰 호응을 받아 올해도 추진하게 됐다.

선정된 소룡동 관내 저소득층 100가구는 매 트리스 케어 전문가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매트리스 청소를 진행하며, 일부 노후 된 매트 리스는 새 매트리스로 교체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부고]

이말여 별세 오규삼(전 완주군부군수), 오경재(원광대 의과대학교수) 모친상

빈소: 전주효자장례타운 특101호실 2층 발인: 9월 20일 오전 8시 장지: 전주승화원 연락처: 010-3675-7881

함께해요!

플라스틱 플이기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 하는데는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 분해 하는데는 500년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 실천 해 주세요

JBT)

김정은의 '안러경중'과 신냉전 굳히기 성공할까(2)

조성렬

공감뉴스 1전복음 세계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중국 전 승절 행사에 참석하면 6년 8개월 만에 다시 중국을 찾는 게 된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 성이 높다. 다만, 북·중·러 3자 정 상회담은 중국 측이 난색을 표명 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 목적은 당장 한미일 남방삼각에 맞설 북중러 북방삼각을 구축하지는 못하더 라도, 북·러 관계 강화를 통해 안 보는 러시아로부터 보장받고 북・ 중 관계 증진을 통해 경제적 이익 은 중국에게서 얻는다는 '안러경 중(安露經中)'의 전략구상을 실현 하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지난 7월 1일 제80 주년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 령을 초청했다. 하지만 한국정부 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 신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 기로 하고, 이에 앞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 령 특사단을 중국에 보냈다. 신정 부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에도 불 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 지 않기로 한 것은 2015년 제70 주년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많은 외교적 부작용 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 승절 참석은 '균형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강화하고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공동 대응하는 성격이 강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 일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얻고 한 중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용외 교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하

지만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에 대해 한국이 미·일 동맹에서 벗 어나 중국에 기울어지는 것 아니 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서방국가 정상 중 유일 하게 참석한 점이 논란을 키웠다. 중국의 전승절이 단순한 외교적 행사를 넘어 동아시아 안보구도 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 려도 제기되었다.

중국전승절의 명칭은 '중국인 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이다. 명칭에서 보듯이 전승절 행사의 목적은 '반 일 반서방 국제연대'에 있다. 또 한 중국공산당 정부가 전승절 행 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함으로써 항일전쟁의 주체가 장개석 국민 당 정부가 아닌 공산당 정부에 있 다는 '역사수정주의'를 노린 것이 다. 이는 중국 주도의 대만 통일 을 정당화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박근혜의 중국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결과적으로 한·일 및 한· 미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다. 역대 정부가 원 칙을 지켜왔던 일본군 위안부 문 제를 졸속으로 처리하고 햇볕정 책의 성과로 만들어진 개성공단 이 문을 닫게 되었다. 또한 주한 미군에 대한 사드 배치 허용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정부가 한한령 (限韓令)을 발동하는 구실을 제 공했다. 박근혜 정부의 근시안적 인 대중 우호 정책이 역설적으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4일 한 중 수교 기념일에 맞춰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통령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했다. 이날 이 이 대통령의 방일, 방미 기간 과 겹쳤기 때문인지, 시진핑 주석 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과거 대통령 특 사들이 중국에 갔을 때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기 때 문이다. 중국 특사단이 시 주석은 못 만났지만, 중국 측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왕이 외교 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나 와 나름대로 특사단을 예우하는 모양새는 취했다. 이번 전승절 열 병식을 관람할 천안문 망루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어떻게 예우 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대중 특사단은 10월 말 경주에 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 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 의 참석을 공식 요청하는 이 대 통령의 친서를 왕이 외교부장에 게 전달했다. 지난 8월 31일 위성 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 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 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시진핑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이재 명 대통령의 중국전승절' 참석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 제 시진핑이 경주에 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만약 시진핑 주석이 APEC에 참 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바로 신냉전 구도의 형성을 의미하진 않더라도, 여전히 한·중 관계 개 선은 이재명 정부가 내건 '국익중 심의 실용외교'에 숙제로 남을 가 능성이 크다.

반대로 시진핑 주석이 APEC 참 석을 위해 한국에 와 한·중 정상 회담을 개최하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중 관계는 크 게 개선될 여지가 크다. 김 위원 장이 그린 '한·미·일 vs. 북·중· 러'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여지 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

우리 정부로선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시진핑 주석이 참석 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도 APEC에 참 석해 다자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한·중은 물론 미·중, 중·일 양자 정상회담도 성사되는 것이다. 이 렇게 되면 적어도 한반도를 둘러 싼 신냉전구도 형성의 우려를 불 식시킬 수 있고, 미국, 일본에 이 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 를 재정립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처럼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 여부는 이재명표 '국 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성패를 가 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만금 메가샌드박스는 국가균형발전의 시험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새만금 국가산 단 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데 이어 새만 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까지 최종 확정 됐다. 전북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굵직 한 핵심 사업들이 연이어 국가 아젠다에 포함된 것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자 국가 균형발전의 중대한 이정표라 할 만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국정 과제가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 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북이 선제적 으로 나서는 것이다.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략 이다. 특정 기업이나 일부 산업에 한정 된 특례가 아니라, 새만금 전역을 대상 으로 규제를 제로화하고 첨단산업 실증 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이를 통해 새만금은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단순히 기업 유치 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마련, SOC·세제· 전력·인재·R&D 전 분야에서 실효성 있 는 지원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다.

특히 새만금은 291㎢에 달하는 국내 최대 매립지라는 물리적 장점에 더해,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기 반까지 확보한 준비된 전략지대다. 정부 가 추진하는 ABCDEF(AI, Bio, 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 전략에 전 북이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한 'ABCDEF+G 비전'을 내세운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첨단재생바이오, 헴프 산 업 클러스터, K-푸드 수출 허브 등 미래

신산업을 단계적으로 실증하고 확산시 킬 구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전략은 지 역을 넘어 대한민국 신산업의 글로벌 경 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제도적 틀만 마련됐다고 안심 할 수는 없다. 실제 기업들이 투자를 결 단하려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집 행, 신속한 인허가, 인재 수급, 그리고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전 제돼야 한다. 전북도는 전문가협의회 워 킹그룹을 상시 운영하며, 9월과 11월 새 만금정책포럼을 통해 국회·중앙부처· 학계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러한 거버넌스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 질적인 정책 실행력으로 연결되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새만금 메가샌드박스가 국가 차 원의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 아가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가시 적 성과를 내야만 글로벌기업들의 신뢰 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 사례 가 쌓이면 '규제 없는 혁신 무대'라는 간 판만 남을 수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 발청은 산업·투자유치 전략을 공간계획 과 긴밀히 연계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 도록 준비해야 한다.

남원 공공의대와 고령친화산업복합 단지, 그리고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 스, 이 3축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산업전략의 핵심 이다. 특히 새만금이 메가샌드박스로 거 듭난다면,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 를 넘어 균형 있는 국가 성장의 상징으 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전북이 이번 기 회를 잘 살려내길 기대한다.

-ㅣ독자광장ㅣ

점점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 당신도 당할 수 있다



해는 날이 다. 갈수록 증

범죄로 뽑히고 있다.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 의 대출사기형 수법 등 여러 유형 등을 통해 금전을 탈취하거나 갈 으로 보이스피싱을 하여 시민들 취하는 범죄수법으로 2000년대 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 초반부터 등장해 현재는 AI, 메 다. 신저, 문자까지 수법이 다양해지

문

화

재

전

최근 보 피해자의 53%를 차지했으며 젊 이스피싱 은층을 겨냥한 대출사기, 메신저 으로 인한 피싱도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어 재산상 피 전 연령층 피해가 심각한 추세이

보이스피싱 수법에는 검찰, 경 가하고 있 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으며, 그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 피해는 단순히 금전 피해 뿐만 아 다" 등으로 속여 보안계좌로 돈을 니라 그로 인해 자책감으로 피해 이체시키거나 앱 설치 등을 유도 자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저금리 대 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을 올리기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와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황하라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극활용이다. 시티즌 코난 앱은 경 고 있다.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첫째 전화번호를 맹신하지 말 것 기 대비 17%가 증가했으며 피해 로 실제 은행, 검찰 번호로 와도 성앱 예방 앱으로 보이스피싱에 요하다. 액 역시 3116억원으로 2.2배 급증 신뢰하지 말고 직접 확인해야한 사용되는 악성앱이나 원격제어앱 하였다.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다. 둘째 금융기관(은행, 검찰, 경 을 실시간 검색하고 삭제하여 AI



찰)은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OTP 기반으로 문자 내 의심 링크 URL 번호 등을 절대 전화로 요구하지 을 분석하고 차단하는 앱이다. 않으므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

보이스피싱은 삶을 앗아가는 었다"는 말은 사기이므로 무시하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안전 여야한다. 셋째 시티즌코난 앱 적 과 소중한 금액을 지키기 위해서 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보이스 찰청 치안정책연구소와 인피니그 피싱 예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서 신고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동 이다.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 루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용 악 로 공유하며 실천하는 태도가 중

>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이한일

오늘의시

무지개를 위하여 / 곽재구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의 강은 찾을 수 있어요? 영혼도 숨을 쉬나요? 영혼의 날개를 본 적 있어요? 그걸 좀 보여주세요 당신의 가슴에서

내 가슴에 이르는 저 기나긴 다리의 이름은 무엇인지요? 색색의 꿈으로 빚어놓은 저 섬세한 바람의 술렁거림은 무엇인지요?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한 번도 꿈꾼 적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기슴에 와 부서지는 저 그리운 빛들의 축제는 또 무어라고 부르지요?

시인 약력: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 숭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 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동화 집 '아기 참새 찌꾸', '낙타풀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자장면' 등을 냈다. 1992년 시 집 '참 맑은 물살'을 펴냈으며,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순천대 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전북타임스 Beneutinus

2011년 10월01일 회刑/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역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연후지사 010-8640-6855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익산 성불사 육경합부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기록유산, 목판본, 사찰본

- 시대 - 조선시대

- 지정일 - 2022년 9월 16일

- 소재지 - 익산시 왕궁면 안림길 42-1



2025 전북 일자리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채용과 정책 잇는 소통과 협력의 장"

37개 기업 참여, 250명 채용 목표 … 구직자 1,000여 명 몰려 현장 면접·취업 컨설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2025 전북 일자리페스티벌이 구직자 1,000 다. 여 명이 몰리는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행사장은 △기업채용관 △취업지원관 △전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 기업은 △정 막을 내렸다.

도내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소통과 채용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37개 기업이 참여해 250 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현장 면접과 채용 상 제통상진흥원 등 27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다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양한 일자리 정부와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일 참석하지 못한 22개 기업에 대한 간접 채 미지 메이킹 프로그램뿐 아니라, 취업타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체험관으로 구성됐다. 기업채용관에는 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전주대학교 북의 주력 산업인 농생명바이오, 탄소융복합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2025 전북특별자 소재, 이차전지·수소 관련 기업을 비롯해 금 치도 일자리페스티벌'을 열고, 구인 기업과 융,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생 활밀착형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취업지원관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대학 연계 직업 설계 등 실전형 컨설팅이 이 "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한 채용 행사가 아니 담을 진행했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북경 뭐졌고, 구직자의 면접 대응력 향상과 직무 라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특히 전북일자리센터 부스를 통해 행사 당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메이크업과 같은 이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도록 최 용상담을 제공하는 등 기업 참여 폭이 넓혔 지문 적성검사, 취업 스트레스 상담 등 체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 다. 전북자치도는 일자리 분야에 기여한 3개 우수기업과 유관기관·공무원 등 총 15명에게 읍시 ㈜세창스틸 △김제시 ㈜석경에이티 △ 완주군 ㈜알앤더스로, 지역 산업 발전과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구직자와 기업 간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매칭 시스템을 지속적 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 또한 전시체험관에서는 퍼스널컬러 진단, 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도민에게

/장정철 기자



